

‘벤투호’ 카타르WC 2차예선 6월 5일·9일·13일에 열린다

고양종합운동장서 튀르키예·스리랑카·레바논전

6월 국내서 펼쳐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의 일정 및 장소가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북한의 불참이 확정됨에 따라 레바논, 튀르키예니스탄, 스리랑카가 참가하는 H조 잔여경기는 6월 5일과 9일, 13일 각각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예선에선 총 5경가 벌어지는데, 모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당초 2차 예선은 홈&어웨이 방식으로 열렸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별로 특정국가에서 잔여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H 조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월 5일 오후 8시 튀르키예니스탄, 9일 오후 8시 스리랑카, 13일 오후 3시 레바논과 각각 대결한다. 국가대표팀이 고양에서 경기를 갖는 것은 지난해 10월 올림픽대표팀과 스페셜 매치 이후 8개월만이며, A매치는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 친선경기(2-0 승)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대표팀은 24일 명단 발표에 이어 31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아시아 최종예선에는 2차 예선 8개조에서 1위를 차지한 8팀과 각조 2위 중 상위 4팀이 참가한다. 12팀이 출전하는 최종예선은 6팀씩 2개조로 나눠 치러지며, 각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3위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승자가 다른 대륙 팀과 결정전을 펼쳐 본선행로를 노크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토트넘, 케인과 결별 유력

현지매체들 “올 여름에 새팀 찾겠다는 의지” 계약 연장 안한 손흥민에 영향 미칠지 관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주포’ 해리 케인의 결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스카이스포츠, ESPN 등 복수의 영국 매체들이 연일 “케인이 올 여름이적시장에서 새 팀을 찾겠다는 의지”라고 전하고 있다. 구체적 정황도 나왔다. 18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최근 구단에 다시 한번 이적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여러 클럽들이 관심을 드러냈다. 당장 EPL 내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시티, 첼시 등이 행선지로 거론된다. 토트넘이 케인의 이적료로 책정한 1억 5000만 파운드(약 2400억 원)를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지닌 팀들이다.

케인이 이적을 결심한 배경은 반복되는 ‘부관의 아쉬움’이다. 올 시즌에도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조기 탈락했고, 최근 리그컵 결승에선 맨체스터시티에 무릎을 꿇었다. 2018~2019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UCL) 파이널까지 올랐으나, 역시 패배했다.

토트넘은 케인이 남아주기를 원한다. 지난해 여름 이적을 추진하던 케인을 설득시켰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토트넘의 공식 입장은 “일단 남은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적설을 부정하지 못할 만큼 내부기류가 심상치 않다.

당연히 손흥민의 거취에도 케인의 행보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단짝’ 케인과 마찬가지로 손흥민도 우승이 간절하다. 현직에선 손흥민은 당분간 떠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아직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헛심 공방 90분...광주 5G무승·제주 6G무승

양팀 21차례 슈트 주고 받았지만 서로 골망 못 흔들고 0-0 종료
광주 4연패, 제주는 3연패 마감



K리그1(1부) 광주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무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와 제주는 19일 광주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7라운드 대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 최근 4연패를 기록 중이던 광주는 5경기 만에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제주는 3연패 탈출에는 성공했으나 6경기째 승수를 쌓지 못했다. 이 기간 기록은 3무3패다.

광주는 4승2무10패, 승점 14에 그쳐 꼴찌(12위) 탈출에 실패했고, 분위기 반전을 노린 6위 제주는 4승9무4패, 승점 21에 머무르며 전날(18일) 수원FC 원정에서 4-3으로 이긴 5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24)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기 전 상황은 원정 팀이 좀더 유리해 보였다. 광주의 브라질 골잡이 펠리페가 종아리 통증으로 경기 엔트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펠리페는 1-2로 역전패한 15일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후반 15분 갑작스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

다행히 펠리페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광주 김호영 감독은 무리하지 않고 이날 휴식을 줬다. 광주 관계자는 “펠리페는 이 경기만 출전하지 않는다. 23일 수원 삼성과 홈경기에는 정상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폼이 좋은 토종 스트라이커 주민



광주FC 공격수 엄원상(왼쪽)이 19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7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오른발 슈트를 날리고 있다. 양 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규를 선봉에 세우고 정우재와 박원재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제주는 상대 진영을 공략했으나 몸을 내던진 광주 수비에 번번이 걸렸다. 결정적 장면은 있었다. 후반 27분 이창민이 띄운 코너킥을 세트피스 공격에 가담했던 중앙 수비수 김요규

가 날카로운 헤더를 시도했으나 골대를 맞고 뒤흔들었다.

광주도 내내 수비만 하지 않았다. 부상에서 회복한 엄원상을 전방에 투입하고, 측면 날개 헤이스에게 공격 조율을 맡기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후반

13분에는 아껴둔 김주공까지 투입해 반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두 팀은 21차례 슈트 주고받았지만 끝내 서로의 골망을 흔드는 데 실패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물 갔다고? ‘헤트트릭’ 임상협의 부활 반란

수원FC전 1부 시즌 첫 헤트트릭
제주시절 부진 탈출 위해 맹훈련
“제자리에 있었다는 걸 증명했다”



포항 임상협

간절하게 기회를 잡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K리그1(1부) 포항 스틸러스의 측면 공격수 임상협(33)이 헤트트릭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임상협은 1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 4분 만에 골 맛을 봤다. 상대 지역 오른쪽에서 크베시치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3분에는 신진호가 연결한 볼을 왼발 슈트해 추가골을 뽑았고, 3분 뒤 다시 신진호의 패스를 잡아 상대 골

키퍼까지 제치며 오른발 슈트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임상협은 부산 아이파크 시절인 2013년 8월 경남FC전 이후 8년 만에 개인통산 2번째이자, 올 시즌 K리그 첫 헤트트릭을 만들었다.

빈곤한 공격력을 걱정해온 포항 김기동 감독도 활짝 웃었다. 앞선 15경기에서 포항은 15득점에 그쳤다. 경기당 1골을 간신히 채웠다. 임상협의 환상적 퍼포먼스가 반가운 이유다.

모든 게 잘 풀리진 않았다. 방심한 탓인

지 포항은 순식간에 동점을 허용했다. 전반 31분 조유민의 골을 도운 무릎로가 후반 11분 해결사로 나선 수원FC는 후반 27분 라스의 페널티킥 골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포항 송민규가 곧바로 4번째 골을 터트렸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바뀌었으나, 올 시즌 16경기에서 6골·1도움을 올린 임상협의 활약은 충분히 인상적이다. 수원 삼성에서 뛰다 올해 초 포항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는 몸값표가 붙었다. 수원에서 3년을 뛰고, 그 중 반 시즌(2019년 후반기)은 제주 유나이티드로 임대됐던 그는 27경기에서 2골·1도움(이상 수원)에 그쳤다. 제주에선 4경기에 나섰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 명예를 회복했다. 많은 활동량과 적극적 수비 가담, 수준급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창출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개인훈련의 영향도 크다. 팀 훈련이 끝나도 골키퍼 강현무의 도움을 받아 킥 연습을 하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6일 전북 현대전을 시작으로 FC서울과 수원에 잇달아 비수를 꽂았고, 이날 헤트트릭으로 확실한 부활을 알렸다.

22일 울산 현대와 ‘동해안 더비’를 앞두고 값진 승리를 맛본 김 감독이 “(임)상협이의 헤트트릭을 축하한다.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노력이 가져온 산물”이라며 고마움을 전하자, 임상협은 “믿고 기회를 주신 것에 보답하려 했다. 선수는 지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 생각했다. ‘한물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난 제 자리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며 활짝 웃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도쿄 프로젝트’ 김학범호, 가나와 6월 평가전 추진

빠어난 개인기 최적의 파트너
“격리 풀릴 전망...성사 가능성”

7월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올림픽축구대표팀이 ‘메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6월 A매치 주간(1~15일)을 활용해 대회 본선 환경과 가장 비슷한 제주도에 훈련 캠프를 차리고 마지막 점검에 돌입한다. 최종엔트리는 와일드카드 3장을 포함해 18명이지만, 김 감독은 예비엔트리(50명)

에 있는 26명 안팎의 선수들을 소집해 경쟁력을 확인할 참이다.

이 기간 2차례 국내 평가전(6월 12·15일)도 추진되고 있다. 최대 결집률인 해외 선수단에 대한 2주 격리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르면, 입국자는 음성 판정이 나와도 2주간 격리가 필요하나 정부와 방역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평가전 상대를 물색할 수 있게 됐다.

김 감독이 거듭 “최대한 강팀을 섭외해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아프리카 가나와

유력한 스파링 파트너로 떠올랐다. 복수의 축구인들은 19일 “가나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격리 문제도 잘 풀릴 분위기다. 평가전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한국과 가나의 올림픽대표팀간 상대 전적에선 2승1무로 우리가 앞서지만, 상대가 빠어난 개인기와 특유의 탄력을 자랑하는 만큼 최적의 파트너로 볼 수 있다. 가나는 6월 5일 일본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 격리 문제만 해결되면 방한이 어렵지 않다.

대한축구협회는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여러 곳과 접촉하

며 평가전 상대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초 협회는 ‘김학범호’가 본선 조별리그 B조에서 만날 뉴질랜드, 온두라스에 대비해 호주, 멕시코의 초청을 염두에 뒀으나 이들 국가는 유럽, 중동 전지훈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림픽 개막을 앞둔 6월 말 최종 소집 때는 도쿄 입성에 앞서 사전 캠프처럼 한국을 거쳐 갈 수 있어 교감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한·일 평가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3월 A매치 한·일전을 계기로 꾸준한 협의해온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수단 안전,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김 감독은 24일 6월 소집 엔트리를 발표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